

[보도자료 2010년 3월 4일]

‘생명공학작물 실용화 15년, 경작지 10억헥타르 넘었다’

- ISAAA 클라이브 제임스 회장 서울 방문, 생명공학기술 15주년 보고
- 재배면적 중국, 미국보다 넓어... 29개국, 59% 농업인구가 재배 중
- 식량안보 빈곤완화를 위해 중남미, 아시아에서 작물 재배 급증 전망

서울 (2010년3월4일) - “생명공학 작물이 실용화 된지 15년 만인 2010년에 누적 경작 면적이 중국, 미국 국토와 맞먹는 10억 헥타르를 넘어섰다. 이는 생명공학작물이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로 볼 수 있을 것”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 회장 클라이브 제임스는 3월 4일 서울을 방문, 2010년 연차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크롭라이프 코리아(대표 김태산)와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 GM작물 실용화 사업단(단장 박수철)이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회장을 초청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생명공학작물 상용화 15주년을 기념해 전세계 생명공학작물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생명공학작물 실용화 15주년 국제현황 보고’에 따르면, 생명공학작물은 2010년 기준으로 29개국 1,540만 여명이 1억4800만 헥타르를 경작했으며 누적된 경작면적은 10억 헥타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헥타르는 대략 중국이나 미국 국토와 맞먹는 면적이다. 이와 관련해 클라이브 제임스 회장은 “생명공학작물 재배는 실용화 된지 15년 만에 87배가 증가하였다. 이는 생명공학작물 기술이 현대 농업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도입된, 검증된 작물 기술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말했다.

제임스 회장은 또한 “생명공학 작물 경작 면적은 특히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1,400만 헥타르(10%성장률)나 증가하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며 “이는 지금까지의 연간 증가 폭 중 두 번째로 큰 것”이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생명공학 작물을 재배하는 상위 10개국의 경작면적은 최소 100만 헥타르를 넘어섰다. 국가별 경작 면적 순위는 미국 (6,680만 헥타르), 브라질 (2,540만 헥타르), 아르헨티나 (2,290만 헥타르), 인도 (940만 헥타르), 캐나다 (880만 헥타르), 중국 (350만 헥타르), 파라과이 (260만 헥타르), 파키스탄 (240만 헥타르), 남아공 (220만 헥타르) 우루과이 (110만 헥타르) 등이다.

생명공학 작물 전용 경작 면적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인 브라질은 최근 2년 연속

세계에서 생명공학작물 경작지가 가장 많이 확대된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2010년에 전년 대비 19% 증가에 해당하는 400만 헥타르가 늘어나서 총 경작면적이 2,540만 헥타르에 이르렀다.

브라질은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외국과의 수출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현재 전세계 생명공학 작물 생산량의 17%를 재배하고 있다.

생명공학 작물은 이처럼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대안으로 인식되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주요 생명공학 작물 재배 5대 국가로 꼽히는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의 2010년 재배 면적은 전세계 총 재배면적의 43%에 해당하는 6,300만 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이브 제임스 회장은 “개발도상국들은 2010년에 전세계 생명공학 작물의 48%를 재배했고 오는 2015년이면 이러한 작물 재배 면적에서 산업 선진국을 능가할 것이다.”라며 “향후 5년 간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이러한 작물 재배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에는 기능성작물 재배를 시작한 국가들도 눈에 띈다. 파키스탄, 미얀마 농민들이 해충 내성 Bt 목화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최초로 생명공학 작물을 상용화한 스웨덴은 고품질 녹말 감자를 공업 및 가축 사료 용으로 재배하도록 승인했다. 독일도 2010년에 같은 종류의 생명공학 감자를 재배함으로써 생명공학 옥수수나 감자를 재배하는 8개 EU 국가의 일원이 되었다.

ISAAA는 오는 2015년까지 12개국이 추가적으로 생명공학 작물을 도입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재배 인구 및 면적도 배가되어 각각 2,000만 명, 2억 헥타르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임스 회장은 생명공학작물이 기후 변화가 극심한 현대사회에서 안정적인 작물 수급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친환경적인 재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세하고 자원이 부족한 농민들이 생명공학 작물에 보다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책임성 있고 엄격하되 부담을 주지 않는 합리적 제도 마련과 연구 개발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ISAAA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 (ISAAA)는 생명공학작물에 관한 지식과 응용을 공유함으로써 기아와 빈곤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로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ISAAA의 회장 겸 설립자인 클라이브 제임스는 지난 30년 동안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면서 생명공학 작물과 글로벌 식량 안보에 주안점을 두고 농업 분야 연구개발에 힘써왔다.

– 보고서 추가 정보: www.isaaa.org

CropLife Korea

크롭라이프 코리아는 생명공학작물 산업을 대표하는 협력기구로서, 생명공학작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14개 국가의 작물보호협회와 6개의 다국적 작물과학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크롭라이프 코리아의 회원사들은 농업생산성 증가에 있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선도역할을 하고 있다.

– 웹사이트: www.croplifekorea.org

– 연락처: 02-2055-1663 | taesan.kim@croplifeasia.org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 GM작물 실용화 사업단

-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이란 국가농업생명공학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산·학·관·연 공동으로 실시하는 농업생명공학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이중 GM작물 실용화 사업단은 생명공학작물의 실용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웹사이트: www.rda.go.kr

- 연락처: 031-299-1780 | usdapark@korea.kr

[보도자료 문의]

크롭라이프 코리아 / 김태산 대표 (02-2055-1663/010-8748-1514)

마콜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원안나 이사 (02-6915-3011/ 010-5240-0701)

/ 이재형 컨설턴트 (02-6915-3029/010-4051-5018)